

「方舟」와 여성주의

조경희(趙璟姬, 열린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5·4'의 遺命 : 여전히 불행한 性
- III. 역사의 상흔 : 1. 박탈당한 性과 사랑
2. 결혼과 이혼
- IV. 불편한 여자들 : 1. 주체로 관계 맺기
2. 자매애
- V. 제3의 공간 : 兩性이 엮어낸 관계망
- VI. 맺음말

I. 머리말

1981년에 쓰여진 張浩의 「方舟」는 “당신은 너무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에……”¹⁾이라는 題詞만으로도 충분히 연구자의 시선을 끄는 작품이다. 1949년 9월에 발표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제6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성에 대한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은 정치적·경제적·문화 교육적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남녀결혼의 자유가 실행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뒤이어 공포된 각 항의 주요 법령, 예컨대 혼인법, 재산 계

1) 張浩, 『方舟』,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8, p.1

승법, 토지법, 노동보호조례 등은 모두 각각의 서로 다른 방면에서 법률상으로 남녀평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²⁾

즉 신중국 성립과 동시에 중국의 여성들은 법제도 상으로 완벽하게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여성들은 '5·4'신문화운동 시기부터 진정한 여성의 해방을 위해 요구되었던 거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으나, 1981년이라는 시점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아직도 너무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바로 이 점만으로도 「方舟」라는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기에 충분하다.

본고는 마치 丁玲의 “‘여성’이란 이 두 글자는 어느 시대가 되어야지 중시되지 않고, 특별하게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인가?”³⁾라는 언급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제의식으로 1981년이라는 시점에서 張洁라는 여성작가의 눈에 포착된 여성 불행의 근원을 천착하고자 하며, 작품 안에 내재된 張洁의 여성주의적 전망을 읽어내고자 한다.

張洁의 「方舟」는 중국여성문학사에서 두 번째 고양이⁴⁾에 탄생한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그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평가와 편면적인 읽기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의 평가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張洁의 「方舟」는 선명한 여성주의적 지향을 지닌 작품이다.⁵⁾ 「方舟」는 당대 중국의 명실상부한 첫 번째 여성주의 텍스트이다.⁶⁾ 「方舟」는 엄격한 의미에서 신시기의 첫 번째 여성문학이다. 7) 「方舟」는 공인된 신시기 첫 번째 여권주의 소설이

2) 「중국 여성 발전상에서의 국가의 역할」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 사상, 2002, p. 97

3) 丁玲, 「“三八”節有感」, 『解放日報·文藝副刊』第18期, 1942.3.9, 王榮 編注, 『丁玲集』, 花城出版社, 广西, 2006, p.226

4) “중국여성문학의 고양은 두 차례의 찬란한 시기를 가진다. 1. '5·4'운동 전후. 사상해방운동의 촉진아래 여성작가들이 탄생. 2.사인방 분쇄이후의 역사적인 신시기. 신시기의 정치해방 사상해방이 문학해방을 가져와, 노년에 접어든 여성작가, 중년에 접어든 여성작가, 젊은 여성작가 등 3대의 여성작가들이 활약하게 된다.” 吳宗蕙 著, 『女作家筆下的女性世界』,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p.2

5) 牛運清 主編, 『中國當代文學精神』, 山東教育出版社 2003, p.324

6) 陸璐, 「沒有航向的女性“諾亞方舟”」, 『當代文壇』第一期, 2006年, p.44

7) 姜波, 「試論張洁小說中的女性意識」, 『學術交流』總第122期 第5期, 2004年 5月, p.152

다.8)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方舟」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소설이라 할 수 없다고 여긴다.9) 張洁는 결코 여성주의자가 아니며, 그녀의 작품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각적인 여성글쓰기는 아니다.10) 그녀(張洁)의 텍스트는 ‘주관적인 표현으로 객관적인 묘사를 교란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보류하고 방임하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따라서 그녀의 개인적인 풍격을 가장 잘 대표하는 텍스트 「愛, 是不能忘記的」와 「方舟」는 상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비평을 받았다.11)”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즉 「方舟」를 의심의 여지없이 여성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창작한 작품이라고 보는 시각과 그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진 연구결과들이 상존함을 알 수 있다. 연구 평가의 극단적인 상이함이 주는 의아함과 함께 연구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方舟」에 대한 어떤 평가도 「方舟」에 대한 전면적인 글 읽기와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꼼꼼한 텍스트 분석을 기초로 하여, 「方舟」에 대한 전면적인 글 읽기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方舟」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여성주의적 지향을 읽어내고자 한다.

사실, 제목인 方舟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도 작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張洁는 권두에 해제로 “方舟并驚, 俯仰极樂.” 『后漢書·班固傳』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方舟并驚, 俯仰极樂’는 인류의 이상적인 양성관계에 대한 경전적인 해석이다.12) “「方舟」의 권두에 해제로 “方舟并驚, 俯仰极樂”라는 문구를 제시해 여성간의 우정과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3) “남성중심의 세계에서 그녀들이 부딪히는 고난은 마치 범람하는 홍수 같고, 그녀들 사이의 우정은 생명의 오아시스를 향해 가는

8) 朱虹, 「中国当代小说中的病妇形象」, 1994, 陈惠芬 马元曦 主编, 『当代中国女性文学文化批评文选』,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7, p.103

9) 梁旭东, 「新时期女性小说的崛起与张洁的《方舟》——女性小说论稿之一——」, 『宁波大学学报(人文科学版)』第14卷 第1期, 2001年 3月, p.16

10) 肖櫻, 「析张洁对新女性的探索」, 『西安石油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3卷 第4期 2004年, p.60

11) 寿静心 著, 『女性文学的革命』,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p.79

12) 陸璐, 앞의 논문, p.43

13) 肖櫻, 앞의 논문 p.58

“方舟”가 되었다.¹⁴⁾ 즉, 張洁가 제시한 해제에서 張洁가 方舟로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는지에 관해 다양한 형태의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에서 그 의미를 따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본다면 그녀들만의 가정, 즉 曹荊華, 柳泉, 梁倩이 서로서로 위안을 주고받으며 세상을 헤쳐 나갈 용기와 힘을 얻는 그녀들만의 안식처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나란히 매어진 두 개의 배”라는 원전의 의미로 읽어낼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그 두 개의 배를 여성과 남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의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여성과 남성이 이루는 조화로운 양성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여성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자매애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의미의 통합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 결국 「方舟」라는 작품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方舟’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관건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그 역의 관계, 즉 ‘方舟’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方舟」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의 관건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張洁는 이 소설에서 자신의 의식이 투영된 듯한 여성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흔들림이나 회의, 망설임 없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 놓는데, 독자가 행간에서 읽어내야 할 상상력의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한 느낌의 직접적인 표현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莎菲 식의 여성내면의 성적특징과 욕망,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통찰하고 해부하는 방식이 아닌, 마치 ‘5·4’시기 魯迅등 남성 신문화 운동가들이 제기한 여성문제들이 반세기 이상이 지난 중국의 현실 속에 어떻게 여전히 존재하는가를 통렬하게 고발하는 듯한 방식이다. 여성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듯한 서사 역시 ‘5·4’ 신문화운동 시기의 남성 작가들의 서사구조와 닮아 있다. 서사 중간 중간에 魯迅의 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특히 魯迅의 「狂人日記」를 강하게 연상하게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5·4’ 신문화운동 시기에 제시되었던 여성해방의식이 張洁의 「方舟」에 이르러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그 60여년의 역사적 시대적 간극이 여성의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고, ‘方舟’라는 어휘가 다양한

14) 王玉朋, 「从《方舟》到《银河》: 女性自我探求的足迹」, 『长春大学学报』第16卷 第3期, 2006年 5月, p.47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듯이, 張浩가 창조해낸 인물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張浩의 여성주의적 관점을 읽어내고자 한다.

II. '5·4'의 遺命 : 여전히 불행한 性

'5·4' 신문화운동 시기의 여성문학과 80년대 여성문학은 60여년의 역사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그 탄생배경이 마치 이란성 쌍둥이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¹⁵⁾

魯迅이 “중국 사람들은 여태껏 ‘사람’의 값을 가져본 적이 없다. 기껏해야 노예에 불과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¹⁶⁾라고 토로하였듯이, '5·4' 신문화 운동가들은 봉건 유교를 소수의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노예화하는 노예도덕의 규범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직후 시작된 인간성 회복 운동¹⁷⁾이 국가와 계급이라는 집체권력에 종속된 국민의 노예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개체적 자율성을 잃은 인간성의 회복운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17년과 문혁시대의 문학에서 인간은 상당한 수준으로 정치표본, 계급부호가 되었고, 정치사상을 전달하고 계급노선을 전달하는 공구가 되었으며, 사회관계의 총화로서의 인간의 다중성, 다양성, 복잡다단함을 잃어버렸고, 문학 안에서의 인간의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잃어버렸다.”¹⁸⁾ 라는 언급에서는 '5·4'신문화운동 시기 이전의 전통 문학이 유교의 도를 담은 “文以載道”의 문학이었다면 17년과 문혁시대의 문학은 정치

15)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비슷한 논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5·4'전통을 계승한 80년대 여성문학” 喬以綱 著, 『當代中國女性文學的文化探析』, 北京大學出版社 2006 p.10 //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여성문학의 탄생은 '5·4' 시기의 여성문학과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각성”인간의 해방이라는 용솨음치는 사회사조가 신시기 여성소설을 배태시켰다.” 梁旭東, 앞의 논문, p.16

16) 魯迅 「燈下漫筆」, 1925. 5, 『魯迅全集 1』,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1. p212

17) “인도주의가 이시기(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소설에 내재하는 선율이 되었다. '5·4'시기에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서양을 학습하여 인도주의를 사상무기로 삼아 봉건예교에 맹렬한 공격을 하였다. 신중국 성립 후에는 人情, 人性, 人道主義는 자산계급의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文化大革命'은 봉건주의가 범람한 대 재난으로 人情, 人性, 인간의 존엄을 멋대로 짓밟았다.” 張鐘 等 編著, 『中國當代文學概觀』, 北京大學出版社 2002 p.259

18) 張德祥 著, 『現實主義當代流變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p.212

사상과 계급노선을 전달하는 또 다른 의미의 “文以載道”의 문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9년 봄, ‘文藝是不是階級斗争的工具’ 토론을 시작으로 1989년 문예의 의식형태문제에 관한 토론에 이르기까지 문예계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문예의 계급성 문제, 정치기능의 문제였다. … 인도주의로 계급투쟁 학설을 대체하였으며, ‘人性論’으로 ‘階級論’을 대체하였고, ‘계급문학’이 ‘인간의 문학(人的文學)’으로 바뀌는 경향이 생겼다.”¹⁹⁾라는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 ‘5·4’신문화운동 시기의 화두였던 ‘인간의 문학(人的文學)’이라는 개념이 다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5·4’신문화운동 시기의 인간해방 운동이 여성문학을 위해 길을 닦았다면, 8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이러한 인성회복 및 인성탐구 현상은 여성문학의 폭발적인 창작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1979년 말부터 시작된 문학의 인도주의 경향 아래 문학의 기능은 계급과 정치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쪽으로 전환하였고, 개혁개방이 본격적인 물살을 타게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탄압이 시작되는²⁰⁾ 이율배반적인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張洁의 「方舟」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張洁는 「方舟」에서 ‘여성의 성과 성 그 자체에 대한 사회의 봉건적인 인식’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5·4’신문화 운동 시기의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문학과 강한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 張洁는 소설에서 “반세기가 지나갔는데도, 그런 사람들의 사상적 수준은 아직 ‘사랑이라는 것은 자는 것이다.’라는 阿Q의 사유논리에 머물러 있다. 阿Q에게 우리의 슬픈 국민정신을 응축시켜 놓은 魯迅선생은 위대하다.”²¹⁾다 라고 직접적으로 魯迅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소설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梁倩이 자신의 영화에 대한 윗사람(姓吳的頭儿)이 비판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19) 中共中央党校文史教研部語文教研室, 『当代文藝思潮研究』,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3, p.2

20) “1979년 3월 웨이징성의 체포로 시작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은 마오 이후 중국의 암울한 정치적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모리스 마이너스 지음/ 김 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2』 도서출판 이산 2004 p.627

“1981년 봄이 되자, 한때 만발했던 민주화운동은 공공장소에서 모두 자취를 감췄다. ... 덩샤오핑 정부는 ‘문화10년’ 동안 냉소적이 되어버린 대중의 사상적·정치적 공허감을 채워줄 만한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더 나은 물질생활을 약속하고 백화점의 진열장에 오르고, 그리고 이전에는 혁명 슬로건이 나열되었던 광고판에 나타나는, 새로운 많은 소비제품을 구입할 것을 시민에게 권장할 뿐이었다.” 같은 책 pp.611-613

21) 張洁, 앞의 책, p.88

옳기는 대목에서 이런 측면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 여자 주인공의 가슴이 왜 그렇게 큰 겁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님 가짜로 그렇게 만든 거요? 일부러 그렇게 높인 거라면 내가 보기에 그건 심각한 사상의식의 문제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봐야 합니다. 그거 음란한 거 아니요? 영? 청소년 범죄를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면 뭘 하자는 거요? 포르노 영화를 만들진 마쇼, 梁倩 동지.” 그래서 내가 말했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조사를 하면 되는 거다. 한번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슴이 크다는 것이 죄가 되나?... 魯迅선생이 말한 것처럼 소매 밖으로 나온 팔을 보면 다른 어떤 부위를 생각하는 거지. 「肥皂」라는 소설처럼, 쓱쓱싹싹...22) 하하!” 23)

‘5·4’신문화 운동가들에게 봉건적이고 기형적이라고 공격당한 이러한 性의식은, 80년대가 되어서도 ‘이혼한 여성의 性에 대한 모욕적인 관점’, ‘상급자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을 사회적으로 공격하고 싶을 때 여지없이 사용하는 性추문’ 등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소설에서 이혼한 독신여성은 ‘단정하지 못한 여자’ 24)로, 마음대로 인간적인 모욕을 가해도 괜찮다는 봉건적인 남성중심사회의 가학성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즉 여성의 性은 어느 한 곳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봉건적인 從(종속)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柳泉의 한탄처럼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속하는 것 같은 것이다.25)

같은 건물에 사는 賈主任은 “그 여자들은 열명, 아니 여덟 명의 외간남자를 숨겨 놓았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녀들을 감시하는가 하면, 그녀들과 같이 사는 암코양이가 같은 건물의 수코양이들을 자극한다는 비난 아닌 비난을 하기도 한다.26) “두 명의

22) “소매 짧은 옷을 입은 사람만 보면 즉시 흰 팔뚝을 생각하고, 즉시 전신 나체를 생각하고, 즉시 생식기를 생각하고, 즉시 성교를 생각하고, 즉시 부당한 성교를 생각하고, 즉시 사생아를 생각 한다. 중국인의 상상력은 이 분야에서만은 이렇게 약진적이다.” 魯迅 「小雜感」, 1927. 12, 『魯迅全集 3』 앞의 책, p. 533

“孝女行이나 忠孝大節이란 장엄한 도덕 윤리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의식의 내면은 “하하하, 비누를 두 개씩이나!” “자네가 산다고, 하하 하하” “짜악짜악이라, 하하!” “호호 씻는단 말이지, 쓱쓱 싹싹……히히……” 魯迅 「肥皂」, 1924. 3, 『魯迅全集 2』 앞의 책, pp.53-54

23) 張洁, 앞의 책, p.101

24) 위의 책, p.14

25) 위의 책, p.13

26) 위의 책, pp.14-15

독신 여자와 한 마리의 독신 고양이 사는 이 기괴한 생활은 늘 梁倩의 남편 白夏山의 마음속에 그녀들을 모욕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며, 그녀들을 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는 그녀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모욕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²⁷⁾라는 표현에서도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여성에 대한 봉건적이고 모욕적인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柳泉이 이혼 말을 꺼냈을 때 영국에서 유학까지 한 柳泉의 아버지는 가문의 불행이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딸이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 비록 사위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말이다.”²⁸⁾ 이혼한 여성은 도덕을 무너뜨리는 풍기문란한 존재이고, 시집을 가면 시집을 따라야 한다는 봉건적인 관념이 역사와 시대의 변화나 교육배경과도 상관없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성들의 여성의 성에 대한 봉건적인 관념은 柳泉을 성희롱하는 柳泉의 직속 상사인 魏經理의 언행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매번 성희롱에 시달릴 때마다 柳泉은 “난 술집의 여종업원이 아니라고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그녀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 불행하게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남 보기에 반반하게 생겼을까? 왜 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이혼한 여자가 되었을까?”²⁹⁾라는 柳泉의 한탄에서 볼 수 있듯이, 심지어 남자들의 눈에 띄일만한 미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죄가 되어 柳泉을 괴롭힘을 알 수 있다.

魏經理가 柳泉을 괴롭히는 일단의 묘사를 살펴보면, “魏經理는 진홍 벨벳 커버를 덮어씌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손에는 서류를 들고 보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었다. 두 다리는 있는 대로 벌리고 그 중 한 다리는 소파의 팔걸이에 올려놓고 있었으며, 바지의 단추는 하나도 잠그지 않아 여자들이나 입을 법한 요란스런 내의가 밖으로 내다 보였다. ... 柳泉이 그 앞에 서 있었지만 魏經理는 내리간 눈꺼풀을 들지 않았다.”³⁰⁾ 뿐만 아니라 魏經理의 운전사 鐵司機까지도 마치 柳泉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듯 행동하여 모욕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셔츠의 등 부분이 온통 땀에 젖어 魏經理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柳泉은 나프탈린으로 만든 원안에 갇힌 개미가 그

27) 위의 책, pp.8-9

28) 위의 책, p.42

29) 위의 책, p.13

30) 위의 책, p.37

곳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죄어오는 이런 모욕의 올라미는 체면이나 존엄이라는 것도 팽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魏經理와 같이 출장을 가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심지어 비좁은 차에 같이 타는 것 모두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³¹⁾

이런 성희롱 외에도 여성의性に 대한 남성의 봉건적인 의식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부분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을 때, 혹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성적인 주문이다. 外事局으로 진근가기 위해 노력하는 柳泉을 방해하기 위해 外事局의 謝昆生과 錢秀瑛은 柳泉이 차출근무 중 외국손님과 외출한 것을 두고 더러운 소문을 퍼뜨리는데,³²⁾ 柳泉에겐 상황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려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荊華 역시 이런 유사한 성적 주문에 시달리게 된다. 安書記(安泰)의 반대로 荊華의 글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자 荊華와 安書記(安泰)가 깨끗하지 못한 관계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되는데, 학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왔으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듣기 고약한 소문들로, 이런 낡은 수법은 누군가를 파멸시키고자 할 때, 특히 여자를 파멸시키고 싶을 땐 똥물을 끼얹는 것보다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³³⁾

張浩는 소설에서 여성을 단지 남성들의 성욕을 배설하고 만족시키는 데 이용할 뿐 여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몇몇 남성들을 그려내고 있으며, 張浩가 그려낸 여성인물들은 성생활에서 유린당하고 학대당한 감각만 있을 뿐, 어떠한 행복과 즐거움도 없다.³⁴⁾ 이는 봉건적이고 기형적인 性의식이 법제도적인 여성해방과 상관없이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5·4' 신문화 운동가들이 봉건유교문화가 주조해낸 비인간적인 도덕 가운데 하나가 기형적인 性이라는 판단을 내렸듯이, 張浩라는 여성작가의 눈에 비친 80년대 중국의 性 역시 봉건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의 한 표본으로, 작가는 이 소설에서 柳泉의 입을

31) 위의 책, p.40

32) 위의 책, p.81

33) 위의 책, pp.87-88

34) 劉慧英 著, 『走出男權傳統的樊籬 —— 文學中男權意識的批判』,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1995, p.129

빌어 “여성은 性이 아니라 사람이다”³⁵⁾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Ⅲ. 역사의 상흔

1. 박탈당한 性과 사랑

씻어도 씻겨지지 않고 닦아도 닦여지지 않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낙인³⁶⁾처럼 그녀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역사의 상처는 늘 그녀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한다.

‘5·4’시기 신문화운동가들에게 “오랜 세월 남성의 기구나 노예였으며, 영혼도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존재”³⁷⁾로 인식되었던 여성들은, ‘5·4’시기와 항일 전쟁시기, 사회주의혁명시기 그리고, 17년과 문혁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남성과 동등한 민족의 주체로 당당히 존재하며, 남성과 어떤 차이도 없는 동등한 인간이라고 인식하게 된다.³⁸⁾ 하지만 “1950년대 여성이 가정에서 나와 사회의 생산 활동에 참가할 것을 고무한 이래 “男女不分”은 시대 풍조가 되었다. 이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사회지위에 대한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남존여비의 전통 관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런 시대 풍조는 문혁시기에 최고봉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무의식중에 남녀 양성의 생리적 심리적 차이를 덮어 감추는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양성을 같이 만드는 기준이 남성이라는 것이다.”³⁹⁾라는 표현에서도 읽어낼 수 있듯이 여성의 성은 無性의 성, 無

35) 張洁, 앞의 책, p.101

36) 위의 책, p.5

37) 周作人, 「人的文學」, 1918. 12.15, 『新青年』第5卷 第6号

38) 이 부분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역학관계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성과물도 나온 터라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정 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戴錦華 「兩難之間或突圍可能?」, 이선이 「中國의 女性主義와 ‘국가’-작가 丁玲을 중심으로」, 임우경 「노라의 자살: 현대 민족서사와 張愛玲의 霸王別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9) 李銀河, 「性別特征与本質主義」, 金一虹 劉伯紅 主編, 『世紀之交的中國婦女與發展』——理論·經濟·文化·健康, 南京大學出版社, 1998 p.43

“‘5·4’시기에 시작되었던 여성해방운동은 몇 십년의 탐색을 거친 후 “문혁”시기에 이르러 전체 사회가 ‘남녀는 다 똑같다’라는 구호를 받아들였지만, 여성의식은 철저하게 잃어버렸다.” 壽靜

聲의 성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4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문학을 “중성문학의 시기”라고 평하는 연구자도 있는 것이다.⁴⁰⁾

‘5·4’ 신문화운동시기 卞紹鈞은 “봉건사회에서 인간이란 단지 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人權이라는 것도 단지 男權의 변형된 모습일 뿐이다.”⁴¹⁾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세기동안 여성해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성의 性만 존재하는, 여성의 性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사회로 전환된 셈이다.

「方舟」에서 “모든 여자들이 역도 선수 같은 팔뚝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몸에서 더 이상 곱고 아름다운 자태를 찾아볼 수 없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까? 荊華조차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⁴²⁾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런 시대는 스스로 ‘남성기질’이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남성에 의해 ‘남성기질’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⁴³⁾, 남녀의 차이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 주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⁴⁴⁾

이러한 기형적인 역사적 상황은 소설의 세 여주인공에게 빼앗긴 젊음, 누려보지 못한 아름다움이라는 회한으로 다가온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한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박탈당한 그녀들은 소설 안에서 “납작하게 눌려진 감, 한밤중에 길에 갇다 버려도 아무도 주위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바람에 말린 쇠고기 같은 모습, 오랫동안 바람과 햇볕에 시달린 나무토막 같은 이마, 겨우 마흔 살인데 노파가 된 듯한 모습, 너무 오래 저장해두어서 수분이 너무 날아가 표피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사과바나나”⁴⁵⁾등으로 묘사되며, 그녀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꽃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자신들의 곱판대로 가득한 지하실이나 영안실 같은 공간인 것이다.⁴⁶⁾

心 著, 『女性文學的革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p.64

40) 陸璐, 앞의 논문, p.43

41) 卞紹鈞, 「女子人格問題」, 『新潮』第1卷 第2號(北京:國立北京大學出版部, 1919.2), 上海書店影印, 1986.4, p.257

42) 張潔, 앞의 책, pp.1-2

43) 李銀河, 앞의 글, p.44

44) “남녀가 다 같다”라는 시대를 거친 후, “鐵姑娘”, “女鐵人”, “女子挖煤組”, “女子架線隊”등등이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누구도 제기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희미해졌다. 壽靜心 著, 앞의 책, p.201

45) 張潔, 앞의 책, p.7, p.8, p.20, p.22, p.80

46) “꽃은 사람의 기운을 따르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은 꽃도 잘 키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아마

소설에서는 세 명의 여주인공이 10년간의 역사적 공간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荊華는 10년간 오지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梁倩은 옥살이를 하였고, 柳泉의 아버지는 외국과 내통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다는 표현 등에서 그녀들이 구체적인 고통 속에서 그 역사를 견뎌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역사가 그녀들에게 만들어준 상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荊華는 10년간의 오지 생활로 요추관절류머티즘을 얻어 앞으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柳泉은 대로상에서건 사무실에서건 모든 공공장소에서 그녀의 말이나 행동, 복장에서 그녀가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고, 어렸을 때 온몸이 터질 듯 속을 꽉 채운 소세지 같았던 梁倩은 지금은 말라서 수분이라곤 조금도 없고, 표면엔 소금버캐가 말라붙어 있는 바람에 말린 소세지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특히 남편 白夏山 눈에 비친 梁倩은 남자가 여자한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흥미도 가져다주지 않는 모습으로, “구멍 난 덧버선에서부터, 삼대처럼 마른 다리, 좁은 사타구니, 납작한 가슴, 광택이라곤 조금도 없는 거무튀튀한 얼굴”⁴⁷⁾ 로 묘사되고 있다.

‘5·4’시기 魯迅은 “성의 차이가 성의 차별로 왜곡되지 않기”⁴⁸⁾를 희망했지만, 17년과 문혁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여성적인 특징을 감추고자 했으며, 여성적인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한 것이라고 느꼈다.”⁴⁹⁾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성의 차이를 없애고 어느 하나의 성적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또 다른 성의 차별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느 한 性의 성적 특징이 무화된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성적 특징을 기초로 하는 양성간의 이상적인 사랑이 부재할 수밖에 없으리란 가능성을 내포한다. “荊華는 남자한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들은 자신들의 여성을 잃었고, 또 진정한 의미의 사랑까지 박탈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荊華)는 얼마나 여인이 되고 싶었던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녀들의 고통내가 너무 심해서일지도 모르겠다. 뜨거운 7월의 날씨에도 그녀들의 방안엔 음침하고 냉랭한 기운이 돌아서 마치 지하실이나 영안실 같은 느낌을 준다.” 위의 책, p.3

47) 위의 책, p.25

48) 魯迅 「關於婦女解放」, 『魯迅全集 4』, 앞의 책 p598

49) 李銀河, 앞의 글, p.44

여인. 아니, 그녀는 남성처럼 되고 싶지 않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강제하는가?”라는 표현에서도 읽어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결코 그녀들이 원한 것이 아니듯,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 사랑 역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희망을 보여준다. 荊華는 60이 넘은 동료 安泰의 사랑을 강하게 지지한다. 60이 넘은 安泰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혈압이 높고, 헝클어진 흰머리가 가을바람 속의 갈대꽃 같은, 손에 든 물컵에서 물이 튕겨 나올 정도로 손이 떨리지만 한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安泰에게 荊華는 결혼을 결심하라고 격려하고 싶어 한다. “60이 넘은 사람은 왜 연애를 할 수 없단 말인가? 만약 80까지 살아서 마침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면 그녀(荊華)는 老安(安泰)처럼 그렇게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⁵⁰⁾라는 생각에서 양성 간에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향한 강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

張浩는 소설에서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여성이 당당한 한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게 보장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여성의 성과 사랑을 잃어야 했던 아이러니와 고통을 세 명의 여주인공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특징을 강조하게 될 때 빠질 수 있는 본질주의적 함정을 비켜가며, 작품 곳곳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진정한 여성해방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는 문제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정한 여성과 진정한 남성이 나눌 수 있는 이상적인 양성관계를 추구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다.

2. 결혼과 이혼

역사의 상흔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그녀들의 결혼과 이혼이다. 그녀들의 결혼과 이혼은 역사와 시대의 음영과 사회에 짙게 깔려 있는 봉건적인 여성 의식이 복합·중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으로, 작가는 그녀들의 결혼과 이혼의 단면을 통해 그녀들의 불행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봉건 유교사회에서 인간은 곧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인간의 권리를 갖지 못한 노예였으며, 따라서 ‘5·4’ 신문화운동시기 여성 해방운동은 여성을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많은 ‘5·4’ 신문화운동가들이

50) 張浩, 앞의 책, p.88

지적하듯 수천년 봉건 신분질서는 남성조차도 인간으로서의 개체가치를 갖지 못하는 신분질서의 정신적 노예였다. '5·4'시기와 항일전쟁 시기, 사회주의 혁명시기를 거치면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받았지만, 17년과 문혁시기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을 남성적인 기준으로 변형시키는 여성의 남성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文革시기의 집체적이고 극좌적인 권력집중시기를 거치면서 어쩌면 국가의 집체적 권력에 종속된 남성·여성 모두 진정한 인간 개체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모두 無性化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여성의 성이 박탈된다는 것, 즉 하나의 성이 제 의미를 갖지 못할 때, 다른 하나의 성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方舟」에는 여성에게 주인으로써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봉건적이고 위압적인 남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남성중심적 봉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열하고 잔인한 속성의 남성들이 존재하는데, 인간 개체의 성적 특징이 무시된, 즉 진정한 남자와 여자를 찾기 힘든 사회에서의 결혼 역시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음을 작가는 소설 속에서 고발하고 있다.

1950년 5월 1일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이 공포 실행된다. 많은 여성들이 중매혼과 매매혼의 속박에서 벗어나 혼인자유를 쟁취하는 데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하며,⁵¹⁾ 이혼의 권리를 보장받는다.⁵²⁾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보장한 것만으로는 행복한 결혼과 당당한 이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소설은 여주인공들의 경험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역사적 상처가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荊華인데, 荊華는 반동 권위로 타도된 늙은 아버지와 그로 인해 생활 보장이 없어진 어린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남자에게 시집가고 또 나중에 이혼을 했다. 그 남자와의 결혼이 파탄 날 때의 한 장면은 아직도 그녀의 의식 속에 악몽으로 존재한다. “우체국의 철이 다 벗겨진 그 작은 녹색 창구, 바닥에 온통 흩어진 꼬깃꼬깃 접힌 소액 지폐들. 어느 지폐 하나 그것을 모을 때의 고생스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부치려고 한 생활비를 그 남자가 손에서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

51) 牛運清 主編, 앞의 책, p.289

52) 김미란, 「중국 1953년 혼인자유 캠페인의 안과 밖:관찰방식과 냉전하 문화적 재구성」, 『한국여성학회지』 제22권 3호, 2006, p.111

는다. 아마 “네 부친과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절수술’을 하다니…내 아들을 죽게 하다니… 너라는 마누라를 얻어 내가 바라는 것이 뭐야, 어?! 이혼이야?”라고 했던 것 같다.⁵³⁾ 하지만 荊華의 기억 속에는 그 남자의 어떠한 형체도 남아 있지 않다. “이상한 것은 자신의 몸과 얼굴에 떨어지던 주먹의 고통도 기억할 수 있고, 그녀의 현숙하지 못한 점을 열거한 대자보도 기억해낼 수 있는데…… 그녀가 가르치던 학교의 벽에 붙어있던 그 대자보들…… 심지어 그 남자의 몸에서 나던 그 향아리 속에서 몇 십년은 삭혔을 것 같은 마늘 냄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한 온돌 위에서 6,7년을 같이 잠을 잤고, 한 식탁에서 6,7년을 같이 밥을 먹은 남자인데. 지금 만약 얼굴을 마주하고 지나간다면 해도 荊華는 그를 못 알아 볼 것이다.”⁵⁴⁾ 즉 시대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결혼이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당한 이혼으로 파탄을 맞은 결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형상은 지금 荊華의 뇌리에 공백으로 남아 있고, 결혼 생활 전체가 구체적인 형상을 잃은 악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荊華는 그런 시대적 상황 아래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 자체를 아이에 대한 죄라고 여겨 아이를 단념하게 된다. “그 세월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죄를 짓는 일이었다. 그 때, 그녀는 훗날 사인방이 타도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⁵⁵⁾ 라는 회한에 찬 회상 속에서 역사와 시대의 상처를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다.

柳泉의 결혼과 이혼에서는 남성의식 안에 존재하는 ‘여성의 性’에 대한 봉건성이 ‘5·4’ 시기 이후 반세기가 지났어도 완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영국으로 유학했던 아버지가 文化大革命 초기에 하룻밤 사이에 외국과 내통한 간첩으로 몰리자 柳泉은 아버지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지만, 柳泉의 남편은 그런 柳泉에게 매일 밤 성관계를 강요한다. 결혼 한 이후 매일 밤 마치 돈으로 사기라도 한 것처럼 관계를 요구하고, 마치 그러지 않으면 손해라도 보는 듯한 태도를 내보인다.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柳泉은 해가 지지않게 해를 끼안고 있고 싶을 정도가 된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 마치 무슨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가벼운 떨림이 천천히 덮치기 시작하는 듯한 병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그녀를 남편은 거칠게 비틀며 “너 내 마누

53) 張洁, 앞의 책, p.4

54) 위의 책, p.5

55) 위의 책, p.4

라 아냐?”라고 묻지만 이 말은 오히려 柳泉이 묻고 싶은 질문인 것이다. 그 남자는 柳泉을 자신의 아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의 화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자를 노예로 여기는 남자들의 이런 유전혼적은 언제가 되어야 깨끗하게 소탕될까?56) 즉, 아내의性は 남편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柳泉의 남편은 이혼과정에서도 아이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여자의 재산과 아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듯 생각하는 봉건성을 드러낸다. 柳泉은 아들 蒙蒙의 양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혼을 5년이나 끌어야 했다. 柳泉의 남편은 蒙蒙을 인질 처럼 잡고 柳泉에게 이혼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하고, 아이를 원하면 이혼을 단념할 것을 요구한다. 이혼 과정에서 거의 정신병에 걸릴 지경에 빠진 柳泉은 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蒙蒙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고, 이혼 후에 자신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지만, 남편은 蒙蒙을 통해 蒙蒙에 소요되는 일체의 생활 잡비를 柳泉에게 요구하게 한다. 柳泉의 남편이 어떤 인간형인지는 그들의 아들 蒙蒙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蒙蒙은 자신의 양육비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그리고 현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난 후, 놀라움과 분노와 원망을 느낀다. 蒙蒙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었기 때문이다. “저는 몰랐어요. 셔츠가 헤지면 아버지는 말하죠. 네 엄마를 찾아가거라. 숙제 공책을 다 써도 네 엄마를 찾아가라고 말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그때 저를 때려요. 목이 아파서 며칠간 목을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요! 저도 많이 힘들었다구요.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아버지는 왜 저를 그렇게 원하셨대요? 왜 저를 자기한테 주지 않으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 이혼 판결문은 고칠 수 없나요? 저를 엄마한테 주라고……”蒙蒙은 울었다.57) 아이가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는 남편, 아이에 양육에 대한 어떤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고집하며 柳泉의 월급에서 한 푼의 모자람도 없이 아이의 양육비를 가져가는 그런 남편을 柳泉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를 그런 남편과 같은 인간으로 키우는 것은 약하고 방어능력과 변별능력이 없는 깨끗한 영혼에 대한 살육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내를 성적,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비열한 인간형인 柳泉의

56) 위의 책, p.71

57) 위의 책, p.99

남편은 아내의 성과 자식을 자신의 소유재산으로 생각하는 봉건성의 전형인 것이다.

梁倩은 결혼 이후 너무 빨리 찾아온 감정의 상실⁵⁸⁾로 이혼을 요구한다. 남편 白夏山은 梁倩의 이혼 요구에 자유시장에서 활어를 파는 상인이 흥정하는 듯한 태도로, 신사협정을 맺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제안한다. 이렇게 이혼 대신 선택한 ‘신사협정’의 이행과정에서 白夏山은 아내의 재산과 장인의 사회적 지위를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의 것으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열하고 봉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白夏山은 일요일 아침 梁倩을 찾기 위해 荆華와 柳泉이 살고 있는 집에 무례한 방문을 한다.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인식은, 梁倩 명의의 집이라면 당연히 바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던 자고 있던 자신은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단지 법적인 부부관계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는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이 표출되는 지점이다. “白夏山은 梁倩과 정식으로 이혼하길 결코 원하지 않았다. 노인네가 죽고 없어도 그의 그 신분은 여전히 대를 잇는 귀족신분처럼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⁵⁹⁾ “잊지 말라구, 당신은 아직 내 마누라고, 당신의 부친은 여전히 나의 장인이라구. 澄澄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⁶⁰⁾ 등등의 표현에서도 여성을 마치 자신이 가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봉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梁倩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권위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것인 양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열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梁倩이 참을 수 없는 것은 白夏山의 그런 장사치 같은 태도인 것이다.

白夏山은 부탁할 일이 없으면 반년 혹은 일년이 지나도 자신을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梁倩은 단정한다. 설혹 梁倩이 자동차에 다리가 부러졌다 해도,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게 잡혀갔다 해도 白夏山은 그녀를 찾지 않을 것이다. 아내에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들키고도 뻔뻔한 白夏山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장인에게

58) “梁倩과 白夏山의 감정은 너무 빨리 찾아왔던 것처럼 너무 빨리 잃어버렸다.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그녀는 너무 젊었다. 18·9살의 여자아이는 작은 구름처럼 너무 많은 비를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책, p.24

59) 위의 책, p.26

60) 위의 책, p.30

힘써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梁倩이 들어주지 않자 梁倩의 영화가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비열한 수단으로 꾀방을 놓는다. 그 광경을 목격한 荆華와 柳泉은 결혼과 남편에게 삶의 기대를 건다는 것의 무망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이게 바로 남편이라는 거야. … 자기 자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라구.”⁶¹⁾라는 말로 서로의 용기를 북돋운다.

이렇게 불행한 결혼으로 그녀들은 결혼을 왕왕 재난에 비교하곤 한다. 결혼이 재난이 아니라면 최소한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한 게임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인연은 소수의 행운아들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는 것(법적으로는 당당하게 이혼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인 것이다. “이혼을 떠올리면 그녀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섭고 가슴이 떨린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 ‘鬧’나 ‘打’를 갖다 붙였을 것이다. …누군가 이혼을 하려면 충분한 용기가 있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버려야 한다… 그 과정은 마치 옷을 다 벗은 채로 수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듯한 정황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⁶²⁾ 그렇게 힘들게 이혼하고 난 후에는 또 보장되지 않는 생계문제로 투쟁을 해야 한다. 이혼 후 집을 분배해 주길 요청하는 柳泉에게 魏經理는 “결혼을 한 사람도 아직 집이 없는데, 이혼 한 사람이 집을 달라니.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 너나 나나 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겠어?” 라며 거절한다. 거주할 공간이 없는 柳泉은 이혼 후 한동안 동창들·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집안일을 보아주며 지내는 게릴라 같은 생활을 눈물 속에서 하게 된다. 법제도적으로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고통과 또 이혼 후에 보장되지 않는 생계문제는 또 다른 여성고통의 존재점인 것이다.

柳泉은 불합리한 상황으로 어처구니없는 불이익을 당할 땐, “남편의 품이 없는 여자는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고장 난 수도관에서 흐르는 물소리에 흐느낌 소리가 묻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⁶³⁾라는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숨어서 울거나 혹은 힘과 능력있는 남편에 대한 환상을 꿈꾸기도 하고, 錢秀瑛처럼 남편자랑을 하는 천박함의 만족을 누리기도 싶어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

61) 위의 책, p.91

62) 위의 책, pp.10-11

63) 위의 책, p.70

로 주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라구.”라는 荊華의 한 마디일 것이다.

IV. 불편한 여자들

1. 주체로 관계 맺기

경제적 독립을 누리는 여성이 있다면, 그에게 계급은 단지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 뿐 아니라, 재생산능력과 자신의 性性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의미한다. 즉 이 여성은 자녀출산, 결혼, 그리고 성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⁶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 즉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게 주체로서 사회와 관계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5·4’ 시기엔 여성이 경제권을 점유하고 행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구조변혁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魯迅은 싸워서 ‘경제권을 획득해야 한다’라는 단도직입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신중국 성립 이후 법제도적인 여성권리의 보장은 여성의 사회적 책임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였으며, 소설 속 세 명의 여주인공이 주체로서,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사회의 성원으로 직접적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여성들이 법제도적인 보장으로 부재의 삶에서 주체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方州」는 이렇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중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에만 머물던 여성들이, 주어진 여성성을 거부하고 주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세계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추구하고자 할 때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균열과 마찰을, 그녀들을 견딜 수 없이 불편해하는 남성들의 시선을 통해 보여준다.

荊華는 이론가, 柳泉은 영어 통역사, 梁倩은 영화감독으로 사회적으로 반듯한 직장도 있고, 비록 집에 LPG가스를 설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구멍탄을 배달받아야 할 정도로 궁핍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입이 있다. 즉, 그

64) 정현백, 앞의 책 p.137

녀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모든 관계에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할 의지와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한다면 하는 여자이다. 이 여자, 정말 독하다! 상대하기 만만하지 않은 여자. 여자 같지 않은 여자... 여자들이 만약 다 이렇게 변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소설 속 남성인물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성들은 그녀들의 모습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거부하고 싶어진다.

그녀들이 주체로서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다. 梁倩은 “문제는 바로 그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왜 자신의 요구가 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왜 그녀는 늘 그녀 마음속의 감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형식을 찾기 어려운가. 어리석음이 누에고치처럼 그녀를 칭칭 감고 있다.”⁶⁵⁾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업무 표현 능력에 대한 무능력을 한심해하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자신이 찍는 영화를 아들인 澄澄보다 더 아들같이 여기고, 자기 몸속의 유전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자기를 인식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생각할 때 그녀의 눈은 마치 영혼에 두 개의 등불이 켜진 것처럼 아름답게 밝아지는 것이다.

荆華는 “이름을 날리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지만, 이 사회에 뭔가를 창조하고 싶어 하고, 당성을 가지고 공산당원이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게 쓰고 싶어 하며, 공산당원으로서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반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다” 라는 태도를 가진다. “어떤 여자가 하루 종일 다른 것은 안하고 변증법과 유물주의이론만 논한다면 모든 남자를 다 놀라 도망가게 할 것이다. 남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아내이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학연구실의 교원이 아닌 것이다. 荆華에게 이 취미(취벽)를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절름발이에게 목발을 버리라고 하고, 성악가에게 성대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⁶⁶⁾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荆華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일이다. 일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가장 커다란 요소로, 일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열심히 자신을 태우고 있는 이미 길지 않은 촛불을 연상하게 한다.

柳泉 역시 많은 고난 끝에 남은 것은 사회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감과 양심임을

65) 張洁, 앞의 책, p.18, p.20, p.22

66) 위의 책, pp.35-36

자각한다. “56원의 임금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 …… 영어, 대학, 칸칸이 5+의 성적표가 그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⁶⁷⁾라는 심정의 토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현재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 불편해하는 여성들을 열거해보는다면, 아마 전통적인 성별 역할 규범에서 자유로운 여자, 지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고 독자적인 판단력을 갖춘 여자, 재능과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할 사회적 기회를 가진 여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여자, 자신이 책임지는 일과 지적인 성취를 이룩한 여자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의 세 여주인공이 소설 속의 가부장적 남성인물들에게 배척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녀들이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가장 답아내기 힘든 여성유형의 전형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 여주인공은 남성들에게서 오는 이러한 억압과 공격에 남성들이 오히려 질릴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흘린 듯이 끝까지 열심히 찾아다니며 남성들을 질리게 하는 梁倩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세 명의 여주인공 가운데 가장 나약한 형상인 柳泉도 자유시장에서 노점 상인에게 전횡을 일삼는 젊은 청년 관리인에게 분노를 느껴 임시변통의 거짓말로 그를 제압하는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 준다. 荊華는 자신에게 진통제 대신 수면제를 주어 좌담회에서 자신을 침묵하게 만든 동료 刀條臉에게 “...당신이 나에게 청산가리를 먹일 용기가 없다면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한테 청산가리를 먹일지도 모르지. 하하”라고 잔인한 농담을 던진다.⁶⁸⁾ 그 이후로 刀條臉은 겁에 따라져 있던 차는 눈치를 보며 결코 마시지 못하게 된다.

소설 속의 세 여주인공은 이렇게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열한 억압에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들에게 가지는 억압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지배적이고 집단적인 여성인식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사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荊華가 “그녀들과 남자들 사이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걸까? 마치 세대차이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성별의 계곡이 있

67) 위의 책, p.46

68) 위의 책, p.51

는 걸까? 그것을 성차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시기에 남자와 비교하면 여자가 더 건전하고 우수한 인종이 혹시 아닐까? ... 맙소사, 이것은 여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남자들이 잘못도 아니다. 모든 사회현상의 존재와 발생은 역사발전과정에서 그 물질 토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⁶⁹⁾라고 자문자답하듯이, 이유 없이 그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정치 않게 그녀들을 대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형의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蒙蒙이 우는 엄마를 보고 머리를 짜내어 엄마를 돕고 싶지만 대체 누가 엄마를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듯이, 그녀들을 괴롭히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힘의 논리와 권력지향적 욕망으로 무장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인식 자체이고, 작가가 소설을 통해 80년대 여성 고통의 근원으로 고발하고 싶은 측면인 것이다.

2. 자매애

“세 명의 독신 여자가 플로어 스탠드의 어두운 음영 아래 앉아 있다. 저녁 후의 식탁엔 먹고 난 후의 그릇들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설거지를 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소리 없이 담배를 피우며 다른 한 사람이 맘속에 쌓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듣거나, 혹은 또 다른 두 사람이 소리 없이 담배를 피우며 다른 한 사람이 분노때문에 주먹으로 소파의 팔걸이를 내리치는 소리를 듣는다. 누구도 누구를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감동적인 텅 빈 말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⁷⁰⁾ 가부장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父와 夫의 봉건적 압제가 없는 여성들만의 대안 가정의 한 풍경이다. 이혼한 두 명의 중년 독신여성과 늘 찾아오는 또 한 명의 사실상 이혼 상태인 중년 독신여성,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어린 아들 蒙蒙, 그리고 암코양이 한 마리가 구성한 대안가정은 늘 설거지를 싫어하는 거주자들 때문에 당장 쓸 식기가 없을 정도로 주방은 어질러져 있다. 여성들의 성별 역할 규범이 완전히 깨어진 형태의 가정인 것이다.

‘5·4’ 신문화운동가들이 걱정했듯이 그녀들은 父와 夫의 울타리를 벗어났어도, 집으로 되돌아가는 노라가 되지 않아도 되며, 또한 魯迅선생이 걱정했던 타락한 노라가 되지 않아도 되었다. 집이 없어 게릴라 생활을 하고 있던 柳泉과 외지에서 막 배이

69) 위의 책, p.57

70) 위의 책, p.40

정으로 돌아온 荊華가 집을 얻으려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때, 고슴도치 같은 머리를 한 梁倩이 막 감옥에서 나온다. 梁倩의 도움으로 그녀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여성들만의 이런 가정 형태는 '5·4'시기 廬隱의 「海邊故人」이나 丁玲의 「暑假」 등에서도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최소단위 공동체인 가족에서 벗어나 여성들만의 가정을 꾸민다는 그 자체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반역일 것이다. 소설 속 세 명의 여주인공은 그녀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주로 세 명의 여주인공 가운데 가장 나약한 형상인 柳泉에게 梁倩과 荊華가 도움과 위안을 주는 구조이다.

“柳泉의 현재 상황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딱 머리가 잠길 만큼 깊이의 연못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본인은 풍덩거리고 몸부림치고 숨이 막혀 괴롭기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지만 못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연못에선 익사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⁷¹⁾ 이런 柳泉을 보며 荊華는 자신이 柳泉의 지팡이가 될 필요를 느낀다. 설혹 그것이 수숫대라 하여도.

서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감히 앓을 수가 없게 된 노예 賈桂의 형상에 자신을 투영하는 柳泉은 모든 답안이 운명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朱禎祥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자신 없어 하는 柳泉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힘들게 싸워야 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싶고, 무릎을 꿇고 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약하며, 자신의 고통스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는 것은 환상, 눈물, 담배이다. 이런 인간형은 주로 자기연민이나 감성적인 환상 가운데서 위안을 찾듯이, 柳泉은 “결혼을 해야겠어. 차도 몰고 다니고 집에 전화도 있는 남편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런 설움을 받지 않겠지.”라는 덧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만약 그 많은 신산함이 눈물을 따라 흘러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눈물을 흘리고, 운명을 믿으며 그 안에서 위안을 찾고 싶어한다. 힘든 순간을 참아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데, 때론 담배를 찾는 습관이 자신의 의지를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처음엔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얼마나

71) 위의 책, p.72

봐내질 못했는가? (담배 피우는)동작은 어느 한 점에 집중된 주의력을 분산시켜 긴장된 정서를 완화시켜준다”⁷²⁾라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런 柳泉이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기 위해 梁倩과 荊華는 자기 일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격려하고 도와준다.

荊華의 건강 상태에 대한 梁倩의 걱정에서도 진한 우정을 느낄 수 있다. 梁倩은 荊華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문제가 될 것이며, 자신이 荊華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荊華는 반신불수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지 모른다. 두 다리로 서지 못하는 그 날이 오겠지만, 荊華의 정신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⁷³⁾라는 대목에서 기존 문학작품에서 이상적으로 그려내던 남성간의 우정에 못지 않은 진한 우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梁倩은 자신의 영화를 심사·비판하던 윗사람(姓吳의頭兒)을 반박하여 결국 영화가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는데, 梁倩이 했던 그 반박을 전해들으며 荊華가 느끼는 감정은 기존의 여성들과의 관계에선 찾아보기 힘든 공감과 신뢰와 우정을 느끼게 한다. “훌륭하다. 梁倩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荊華의 귀에는 통쾌하게 들린다. 그런데, 이 바보. 자신과 마찬가지로 단편 단편은 훌륭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다. 이것이 그녀들의 변함없는 모습인 것이다.”⁷⁴⁾

이뿐 아니라 荊華가 자신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공탄을 배달하는 여성과 평소에 그녀들을 감시하고 힘들게 하던 賈主任을 돕는 장면에서도 여성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도움과 우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아마 작가는 소설을 통해 여성독자들에게 그야말로 자매애에 충만한 다음 한 마디를 들려주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녀(梁倩)는 이런 슬픔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이다. ‘인류에게, 사회에게, 친구에게 너는 유용한 존재이다’라는.”⁷⁵⁾

V. 제3의 공간 : 兩성이 엮어낸 관계망

72) 위의 책, p.35

73) 위의 책, p.61

74) 위의 책, p.102

75) 위의 책, p.79

張浩는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모식으로 서사를 풀어가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성이 이루어내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제시한다. 여성:여성, 여성:남성, 남성:남성의 관계축을 이용하여 이 각각의 관계축에서 2개 이상의 관계망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張浩가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읽히고 있다.

관계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여성:여성(1) 荊華와 柳泉, 梁倩 ⇒ 자매애의 공간

②여성:여성(2) 柳泉 : 錢秀瑛 ⇒ 성적 대상물이 아닌 하나의 인간개체로서 독립적으로 사회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여성과 남성의 타자로서의 자신을 또 다른 권력의 주체로 인식하며 주변을 향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하는 여성이 구성하는 공간

③여성:남성(1) 荊華와 柳泉, 梁倩 : 刀條臉, 魏經理, 謝主任(謝昆生), 姓吳的頭儿 ⇒ 사회와 남성의 봉건성이 빚어낸 여성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 빚어내는 공간

④여성:남성(2) 柳泉, 荊華 : 老董科長, 朱禎祥, 安書記(安泰) ⇒ 여성과 남성 사이의 우정과 신뢰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

⑤남성:남성(1) 魏經理, 謝主任(謝昆生) : 老董科長, 安書記(安泰), 朱禎祥 ⇒ 권력 지향적이고 봉건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의 노예인 남성과 따뜻하고 주변부적인 감성을 지닌 남성이 만들어내는 공간

⑥남성:남성(2) 蒙蒙 : 그의 아버지 ⇒ 父의 봉건적 억압과 그에 대한 반항이 만들어내는 공간

①과 ③부분은 이미 앞 장에서 논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선, 세 명의 여주인공과는 다른 여자인 錢秀瑛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朱禎祥의 표현대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는 여자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있는 여자이다.⁷⁶⁾ 이로써 같은 여성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골이 존재하게 된다. 이혼한 독신여성들에 비해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錢秀瑛은 柳泉에게 모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⁷⁷⁾, 차출근무를 나온 柳泉에게 마치 무슨 지배할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행동한다. 소설에서 묘사한 錢秀瑛의 모습

76) 위의 책, p.68

77) 梁旭东, 앞의 논문, p.17

을 옮겨 보면, 정성껏 다듬은 눈썹, 콧 조여맨 너무 빨리 뚱뚱해진 허리, 얇은 립스틱을 바른 큰 입술, 일을 하는 데 먹히는 방법을 아는 여자이다. 원피스와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서 허리부분의 남아도는 살이 밀려 올라와 요란한 색깔의 원피스 밑으로 볼록 솟아 올라온 복부는 마치 산란을 앞둔 나비같으며, 거울 앞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태양 아래나, 사무실 호텔 식당 자동차 유리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전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이다. 하지만 “업무 능력은 柳泉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져 외빈과의 담화 중 崇禎황제의 이력을 淸나라에서 淸나라로 바꾸어놓을 정도이고, 柳泉이 몇 분에 외올 외빈이 묵는 객실번호를 20분을 더 써야 외올 수 있으며, 손에 영한대사전을 들고 다녀야 한다. 錢秀瑛이 외빈과 끊임없이 수다를 떨거나 외빈의 욕실에서 끝도 없이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분을 바를 동안 柳泉은 업무일지를 쓰거나 다음 날의 일정을 체크한다. 하지만 생존능력은 柳泉에 비해 월등하게 강하다. 어리숙한 柳泉과 비교하면 錢秀瑛은 모든 일을 뜻대로 진행한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지배를 받길 원하며, 그것을 얻기 어려운 기회라고 여긴다. 그녀는 謝昆生쪽에 말발이 먹히는 것 같다.”⁷⁸⁾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錢秀瑛은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즉 권력을 교환할 줄 아는 여자인 것이다. 梁倩조차도 錢秀瑛의 전화 목소리에 “이 목소리는 梁倩으로 하여금 경멸하게도 하고 부럽게 느끼게도 하였다. 따듯한 육조에 몸을 담구고 있는 듯한, 피곤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 이런 정서에선 모든 일이 더욱 융통성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녀와 荆華와 柳泉은 전혀 배우질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錢秀瑛과 직접 권력을 주고받는 관계인 謝昆生은 錢秀瑛의 큰 입, 큰 얼굴, 풍만한 모습을 보며, “차라리 이런 여자와 상대하고 싶지, 梁倩같은 여자와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 마르고 딱딱한, 오래 두어 변질된 기름 냄새가 나는 과자 같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錢秀瑛은 여성을 도구화, 대상화해 온 가부장적 문화를 내면화시킨,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편하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여자들에 대해 자기 오만과 우월감을 가지며, 권력 지향적 남성들이 쓰는 똑같은 수법인 모략과 유언비어를 이용하여 柳泉의 外事局으로의 전근을 막는다. 같은 여성이지만 전혀 다른 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柳泉과 錢秀瑛을 통해 작가는 여성:남성이라는 이분

78) 張潔, 앞의 책, p.70

법적이고 도식적인 대립관계를 피해가며 본질주의의 함정에 빠질 함정 또한 피해감을 알 수 있으며, 남성 중심적 사회에 편하게 수용되는 방법을 체화한 여성유형 역시 또 다른 여성억압의 한 측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엔 같은 남성인 魏經理와 朱禎祥이 柳泉이란 한 여자에 대한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 남성이지만 여성에 대해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魏經理의 눈에 비치는 柳泉은 남색 바지에 흰색과 검은 색 체크 무늬의 짧은 소매 셔츠, 검은 색의 플라스틱 샌들. 눈가, 이마, 심지어 입가에도 깊거나 얇은 주름이 깔려 있는, 몸 전체 어디를 보아도 눈에 띄는 곳이 없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농염한 여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하지만 마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정원 숲을 연상하게 하는 청담한 향을 풍기는 여자이다. 그러나 고기반찬에 물리면 때론 입맛을 바꿔보고 싶은 욕구⁷⁹⁾로 柳泉에게 온갖 모욕적인 성희롱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朱禎祥은 스타 일이나 업무능력이나 사람 됨됨이가 다 錢秀瑛보다 뛰어나지만, (하지만 생존경쟁의 장에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柳泉을 보며, “일할 때의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는가? 관리를 잘못된 명화처럼, 애석하게도 좀이 슬고 퇴색한, 마음은 하늘보다 높지만 팔자는 종이보다 얇은 여자, 마치 상처입은 작은 동물처럼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조심스럽게 사는 여자”⁸⁰⁾인 것이다. 이렇게 한 여성을 두고 두 남성이 갖는 판이하게 다른 느낌을 창조하며, 작가는 여성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따뜻하고 주변부적인 감성을 지닌 남성인물을 만들어낸다.

朱禎祥은 柳泉에 대한 謝昆生의 음모와 모략을 감지하며, 柳泉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 朱禎祥은 謝昆生의 柳泉에 대한 태도에 “독신 여성을 이리도 짓밟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라고 한탄하는 남성이며, 자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柳泉을 대하면서 남을 배려함에 있어 자신의 아내만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남성인 것이다.

동료인 柳泉이 魏經理에게 성희롱 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또 다른 남자 董科長이 있다. 그는 魏經理에게 불러가는 柳泉을 마치 “홍문연”⁸¹⁾에라도 가는 것처럼 안타깝게 바라보며, 魏經理의 사무실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는

79) 위의 책, p.p.38-39

80) 위의 책, p.66,p.68,p.94

柳泉을 전화받으라는 거짓말로 불러내오고, 또 상품 교역회에 柳泉을 데리고 가려 하는 魏經理에게 다른 더 급한 일을 핑계대며 막아준다.⁸¹⁾ 독신인 柳泉이 상사의 성희롱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권하는 董科長은 여성과 조화와 신뢰를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남성 전형인 것이다.

荊華와 安泰는 더욱 결속력 있는 우정의 공간을 창출한다. 安泰(安書記)는 요추 관절류머티즘으로 고통받는 荊華에게 원적외선 치료기를 사주면서도 荊華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갖은 배려를 한다. 또한 荊華의 글에 대한 지지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荊華가 당할 수 있는 곤란을 막아준다. 또한 安泰는 뒤늦게 찾아온 자신의 사랑에 대해 荊華에게 편지 묶음을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는데, 이는 곤란을 당한 荊華에게 자신이 荊華를 여전히 사귄만한 친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오래 전에 安泰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전처에게 이혼해주면서 “당사자인 자신들의 감정이 나빠져서, 이혼하는데 쌍방이 동의했다고만 하라”고 충고한다. 다른 사람까지 관련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질 것을 염려해서인데, 이런 말조차 너무 드러내 놓고 하면 상대방의 체면이 깎일까봐 걱정을 했던 남성이다. 이런 安泰의 감성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인식은 “구사회에서 여성은 너무나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 특별히 동정하고 존중한다.”⁸²⁾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朱禎祥과 董科長, 安書記(安泰)외에도 작가는 柳泉이 비좁은 차 안에서 魏經理의 성추행을 피하게 소극적으로나마 도와준 남성 등을 창조하여, 여성들과 우정과 신뢰의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할 줄 아는 새로운 남성 전형을 제시한다.

이렇게 여성들과 신뢰와 우정으로 조화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지향적 남성상에서 벗어난 남성들로, 작가는 ‘평화롭고 각이 없고 세상과 싸우지 않으려는 모습’, ‘거의 모두가 약자이며 공격과 방어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남자’등으로 묘사하는데, 작중 인물인 梁倩은 이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을까? 나쁜 사람이 많을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많다. 하지만 나쁜사람은 공격형, 침략형이고 착한사람은 늘 방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⁸³⁾ 이렇게 착한사

81) 위의 책, p.36,p.37,p.40

82) 위의 책, p.53

83) 위의 책, p.80

람과 나쁜사람이라고 거칠게 구획되었지만 실은 권력지향적이고 성취 위주의 남성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여성적이고 주변부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는 梁倩의 분류에 따른 착한 사람, 즉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통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柳泉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柳泉은 늘 웃어주고 싶다. 설령 재단이 굶주린 이리처럼 이미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해도.”⁸⁴⁾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배려해가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싶은 것이다.

남성의 시선으로 같은 남성을 관찰하고 해부하여 갖는 느낌, 즉 여성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주변부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봉건적 · 권력 지향적 특성을 체화한 남성을 향해 갖는 느낌은 朱禎祥이 같은 남자인 謝昆生에 대해 갖는 시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서로 각을 세우고 직접 갈등하며 마찰을 빚진 않지만, 朱禎祥은 謝昆生에게 혐오와 멸시의 시선으로 일관한다. 朱禎祥은 謝昆生에게서 모든 것을 빌려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진정한 자기 모습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한다. “어떤 사람의 취미의 고저는 때론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틈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감춰둔,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않았던 저속한 부분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자가 흥미를 느끼는 이성을 통해서이다. …이 사무실의 주인이라는 것이 구시대 관아의 나으리라도 된단 말인가?”⁸⁵⁾라는 표현으로 謝昆生에 대한, 그리고 謝昆生과 錢秀瑛의 관계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다. 謝昆生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결국 남성중심적, 권력지향적 속성이고, 이는 결국 사회악과 부패의 고리와 맞닿아 있으며, 작가는 이를 자유시장의 젊은 관리인 형상을 통해서도 고발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謝昆生은 결국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柳泉의 아들인 蒙蒙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 만들어진 다. 蒙蒙은 우는 엄마를 보고 남자아이들의 짓곳은 장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자신의 반에 있는 여자아이들과 엄마를 비교한다. “하지만 엄마잖아. 설마 개네들과 엄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거야? 만약에 나 같으면 더 좋은 방법으

84) 위의 책, p.37

85) 위의 책, p.67, p.68

로 복수를 하지 울고만 있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 蒙蒙은 아버지가 매를 때리자 아버지가 다 찍어놓은 필름을 몰래 햇볕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아버지가 매를 때릴 때마다 방법을 생각해내어 아버지의 찻잔에 침을 뱉거나 아버지의 시계를 혹은 느리게 혹은 빠르게 돌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 父의 가부장적 권력행사에 대한 어리고 연약한 아들의 대응에서 부당한 억눌림에 대한 약한 존재의 대항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왜 엄마는 내가 아버지한테 하듯 그렇게 보복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걸까? 蒙蒙은 머리를 짜내어 엄마를 돕고 싶지만 대체 누가 엄마를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었다.”⁸⁶⁾등, 아들의 엄마에 대한 이런 태도에서 다소 거칠긴 하지만 부당한 억눌림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상호연대와 상호의존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혹은 동료로서 창출해내는 제3의 공간과 사회적 약자인 아이와 여성이 더 이상 부당한 억압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하는 작가의 메시지에서 강한 여성주의적 지향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VI. 맺음말

丁玲이 「三八節有感」에서 “延安의 여성은 중국 다른 지역의 여성보다 행복하다”라고 언급한 것은 정치체도가 여성의 해방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⁸⁷⁾ 하지만 여성의 해방을 위한 정치와 법체도가 마련되어도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여전히 힘겹게만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여성해방의 진정한 방안은 무엇일까? 법제도적인 보장 이면에 존재하는 여성억압의 사회적 기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소설이 張浩의 「方舟」이다.

즉, 「方舟」는 법과 제도의 보장으로 이미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그리고 이미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겪는 고통의 존재지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소설이다.

張浩는 마치 ‘5·4’ 신문화운동가들이 그러했듯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방안

86) 위의 책, p.108

87) 劉慧英 著, 앞의 책, p.53

을 제시한다. 소설 곳곳에서 강하고 직접적으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치 독자에게 지침을 전달하는 듯한 서사에서 '5·4' 신문화운동가들의 호흡이 느껴진다. 소설에서 梁倩이 “여자, 여자, 여전히 나약한 자매가 여성해방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의 평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스스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현으로 쟁취해야 한다.”⁸⁸⁾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성해방은 정치적·경제적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 및 그녀들의 존재의의와 가치에 대한 사회의 정확한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여성해방은 여성을 인식하는 기존의 봉건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인식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인생에 아무런 의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제거된 사회에서 참된 여자와 참된 남자로 이루어진 인류가 모두 다 정당한 행복을 누리는 사회”⁸⁹⁾를 열망한 '5·4' 신문화운동가 魯迅처럼, 張洁 역시 성별특징을 본질적이거나 고착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남자와 진정한 여자가 서로서로 개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인격을 누리며 사랑하는 그런 조화로운 세계를 염원하며 여성을 위해 촉매를 제안한다.

“여성을 위해, 건배!” 여성이 이미 얻었거나 아직 얻지 못한 권리를 위해서건; 여성이 한 공헌과 희생을 위해서건, 여성이 받았던 말로 할 수 없는 혹은 말로 할 수 있는 고초를 위해서건; 여성이 이미 실현했거나 아직 실현하지 못한 동경과 추구를 위해서건……모든 여성은 부끄러울 것 없이 이 축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을 위해 건배!⁹⁰⁾ 이러한 축사 끝에 “蒙蒙의 세대가 자라기를 기다리자. 그들이 진정한 남자가 되길 기다리자. 그들이 여자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⁹¹⁾라는 언급을 마지막으로 소설은 다음 세대에 탄생할 진정한 남자들에게 희망을 기탁한다. 봉건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관점이 해방된 사회에서, 자기와 다른 性의 고충을 이해하는 진정한 여자와 진정한 남자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方舟」는 진정한 의미에서 조화로운 양성관계를 꿈꾸는 여성주의의 方舟라고 할 수 있다.

88) 張洁, 앞의 책, p.60

89) 魯迅, 「我之節烈觀」, 1918. 8, 『魯迅全集 1』, 앞의 책, p.125

90) 張洁, 앞의 책, p.111

91) 위의 책, p.112

참고문헌

- 張洁, 『方舟』,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8
- 丁玲, 「三八節有感」, 『解放日報·文藝副刊』第18期, 1942.3.9, 王榮 編注, 『丁玲集』, 花城出版社, 广西, 2006.
- 姜波, 「試論張洁小說中的女性意識」, 『學術交流』總第122期 第5期, 2004年 5月
- 肖櫻, 「析張洁對新女性的探索」, 『西安石油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3卷 第4期 2004年
- 魯迅 「灯下漫筆」, 1925. 5, 『魯迅全集 1』,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1
- 劉慧英 著, 『走出男權傳統的樊籬 —— 文學中男權意識的批判』,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1995

Abstract

『Fang Zhou』 and Feminism

Cho Kyeong Hee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study the feminism revealed in “Fang Zhou” or “The Ark” by Zhang Jie in the 1980s. The thesis also overviews the way feminism in China, which was spawned during the New Cultural Movement in May Fourth Period, spread across the country, going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cialist Revolution Period and the Cultural Revolution. The thesis discusses what impact the 60 year period had on the feminism. Above all, it aims to explore the feminist tendencies of Zhang Jie by means of the extensive connections created by Zhang Jie.

Zhang Jie asserts in Fang Zhou that women’s liberation means not only political and economic one but also grasping the reason for and the value of them as a human being. In other words, women’s liberation is to extricate women from the traditional, feudal and men-oriented social framework.

Arguably, Fang Zhou represents the ultimate feminism, in which there is harmony between the two sexes. It is a kind of feminism in which women, now free from feudal, men-oriented society, understands the difficulties of the opposite sex and willing to cooperate with them.

Key words : feminism , Zhang Jie, Fang Zhou, The Ark, the New Cultural Movement in May Fourth Perio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cialist Revolution Period, the Cultural Revolution.